

주간

2015. 6. 1. ~ 6. 7.

전남농업정보

36

VOL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바애포박 재배 동향 및 엽근채소축산물 가격 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순천시, 전국 최고 매실 생산단지 명성 이어간다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중국에 전남 농수산물 고정 판매장 개설한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ICT 융복합 확산으로 과학영농 선도

정책동향

전남 농수산 가공품 서울 특판전서 인기몰이

해외 농업정보

2015년 중국 대외무역 하반기에 상승회복세 예상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으며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적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9만 9천 ha(전년 대비 2.1% ↓)
- 2015년 쌀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3.2% 감소
- 애호박 6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1% 감소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배추, 당근

- 배 추 : 배추 가격은 노지봄배추 및 준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7,000~8,000원/10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시설 및 노지봄당근 출하 중복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 전망

▶ 축산물 : 한육우, 오리

- 한육우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6~8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은 작년(14,606원)보다 3% 상승한 kg당 15,000원 내외(생체 600kg 환산 537만원)로 전망
- 오 리 : 오리가격 공급 증가로 6월 오리 생체 가격은 3kg에 6,500~7,000원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양파·마늘 수급동향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9,171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650원/kg(전년 397원 대비 64%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인 5,425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 당면영농 추진상황

- 모내기 실적 : 55,729ha(계획 168,100ha, 대비 33%)
- 맥류·조사료 수확 : 맥류 1,274ha(계획 16,250, 대비 7%)
조사료 41,400ha(계획 46,000, 대비 90%)
- 매실 수확 : 118ha(계획 3,937ha, 대비 3%)/5.21일 첫 출하(광양·순천 50톤)

❁ 전남 시·군 농정 동향(무등일보, 광남일보)

- ▶ 순천시, 전국 최고 매실 생산단지 명성 이어간다
- ▶ 강진군, 4천 743ha 새끼우렁이농법 추진
- ▶ 신안 고품질 마늘 생산 '총력'
- ▶ 해남군, 여주 가격경쟁력 확보 나서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라남도)

- ▶ 중국에 전남 농수산물 고정 판매장 개설한다
- ▶ 담양딸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 ▶ 농식품부, 가공용 수입쌀 3년간 저가 공급...재고 소진 차원
- ▶ “올해 농식품 수출 갑절 늘려 5천만불 달성할 것”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ICT 융복합 확산으로 과학영농 선도
- ▶ 국내 최초 우리밀 글루텐 개발 성공
- ▶ 전남농기원, 소득이 보이는 경영기록장 8종 발간
- ▶ 고온 다습한 여름철 축사 적정 온도 유지해야

❁ 정책동향(전라남도)

- ▶ 전남 농수산 가공품 서울 특판전서 인기몰이
- ▶ 전남도, 농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
- ▶ 녹색축산육성기금 1% 저리융자 신청하세요
- ▶ 옛 방식 그대로 '전통 모내기 체험' 성황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2015년 중국 대외무역 하반기에 상승회복세 예상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 밀 작황 호조와 시장 기대 이상의 겨울 밀 파종 진척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 가격 하락 동조와 높은 파종 진척도 등이 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 대두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 노조 파업 및 기술적 반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무등일보)

- ▶ ‘골칫거리’ 칙의 진한 향기 살려 부농 꿈꾸는 처녀농군
- ▶ 해남 ‘세발나물’ 고소득 황금작목 정착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 신청
 - 근 거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15. 5. 22.(금) ~ 6. 3.(수) / 13일간
 - 신청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산지 일반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15.6.30.기준 통합상표 기간 연장 희망업체(46개업체, 133제품)
 - 인증기간 : 2015. 7. 1. ~ 2018. 12. 31.(3년)
- ▶ 「남도 전통식품 명인 우수 상품전」 개최
 - 기 간 : 2015. 6. 5.(금) ~ 6. 14.(일) / 10일간
 - 장 소 : 광주신세계백화점(1층)
 - 주최/주관 : 전라남도·광주광역시 / 광주신세계백화점
 - 참여인사 :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명인(13명) 등
 - 출품제품 : 100여 제품(다류, 장류, 한과류, 전통주 등)

▶ '15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2차)

- 신청기한 : 6월말까지
- 용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 지원내용 : 가축 사육환경 개선,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기타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등

◆ '1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추진 ◆

- 용자규모 : 150억원
 - 1차 선정(완료) : 32호 102억원(시설 27호 92억원, 운영 5호 10억원)
 - 2차 선정(계획) : 48억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6. 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1)	전주 (5/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40,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6,250	142,000	192,933	↓ 2.1	↓ 28.0
	고구마(밤)	10kg	30,200	31,600	30,050	25,500	29,227	↑ 18.4	↑ 3.3
	감자(수미)	20kg	44,000	53,600	46,600	23,400	25,963	↑ 88.0	↑ 69.5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	1,180	588	-	-	-	-
	양배추	10kg	12,000	11,000	6,450	4,075	7,090	↑ 194.5	↑ 69.3
	오이(다다기계통)	15kg	17,333	21,667	26,417	19,333	25,733	↓ 10.3	↓ 32.6
	애호박	8kg	8,200	10,800	12,050	12,250	13,963	↓ 33.1	↓ 41.3
	토마토	10kg	23,000	24,400	26,550	17,600	20,637	↑ 30.7	↑ 11.5
	무(월동)	1kg	670	560	475	476	620	↑ 40.8	↑ 8.1
	당근	20kg	30,000	30,000	22,900	31,600	32,120	↓ 5.1	↓ 6.6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0,000	772,000	↑ 28.1	↑ 6.2
	풋고추	10kg	45,200	46,200	67,600	32,250	37,983	↑ 40.2	↑ 19.0
	마늘(난지)	10kg	35,400	35,400	35,400	27,600	37,707	↑ 28.3	↓ 6.1
	양파	1kg	710	710	660	548	711	↑ 29.6	↓ 0.1
	대파	1kg	2,540	2,180	1,658	1,150	1,663	↑ 120.9	↑ 52.7
	파프리카	5kg	29,000	24,600	22,150	19,600	20,573	↑ 48.0	↑ 41.0
	방울토마토	5kg	17,800	19,200	19,550	14,600	15,580	↑ 21.9	↑ 14.2
	딸기	1kg	-	-	6,800	-	-	-	-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7,800	66,800	64,800	88,800	80,220	↓ 23.6	↓ 15.5
	배(신고)	15kg	41,200	41,200	40,800	53,200	51,347	↓ 22.6	↓ 19.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1)	전주 (5/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62,000	↓ 0.4	↓ 5.3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6,000	357,200	↓ 5.8	↑ 17.6
	새송이버섯	2kg	8,600	8,400	8,600	8,100	7,915	↑ 6.2	↑ 8.7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30	6,552	6,302	6,236	6,122	↑ 6.3	↑ 8.3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47	2,234	1,883	2,012	1,903	↑ 16.7	↑ 23.3
	닭고기	1kg	5,172	5,203	5,451	6,149	5,553	↓ 15.9	↓ 6.9
	계란(특란)	10개	1,988	1,995	1,977	1,897	1,816	↑ 4.8	↑ 9.5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5	2,289	↑ 0.1	↑ 11.3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6. 1.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631 천원	4,670 천원	4,205 천원	↓ 0.8	↑ 10.1
	거세	5,788 "	5,737 "	5,414 "	↑ 0.9	↑ 6.9
송아지 (6~7월)	암	2,349 "	2,223 "	1,725 "	↑ 5.7	↑ 36.2
	수	2,827 "	2,718 "	2,468 "	↑ 4.0	↑ 14.5
육우(600Kg)		3,372 "	3,431 "	2,481 "	↓ 1.7	↑ 35.9
젖소수송아지(7일령)		178 "	178 "	21 "	-	↑ 747.6
돼지(110kg)		487 "	503 "	431 "	↓ 3.2	↑ 13.0
육계(원/kg)		1,361 원	1,244 원	1,177 원	↑ 9.4	↑ 15.6
계란(원/특란10개)		1,355 원	1,360 원	1,341 원	↓ 0.4	↑ 1.0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833 원	-	↓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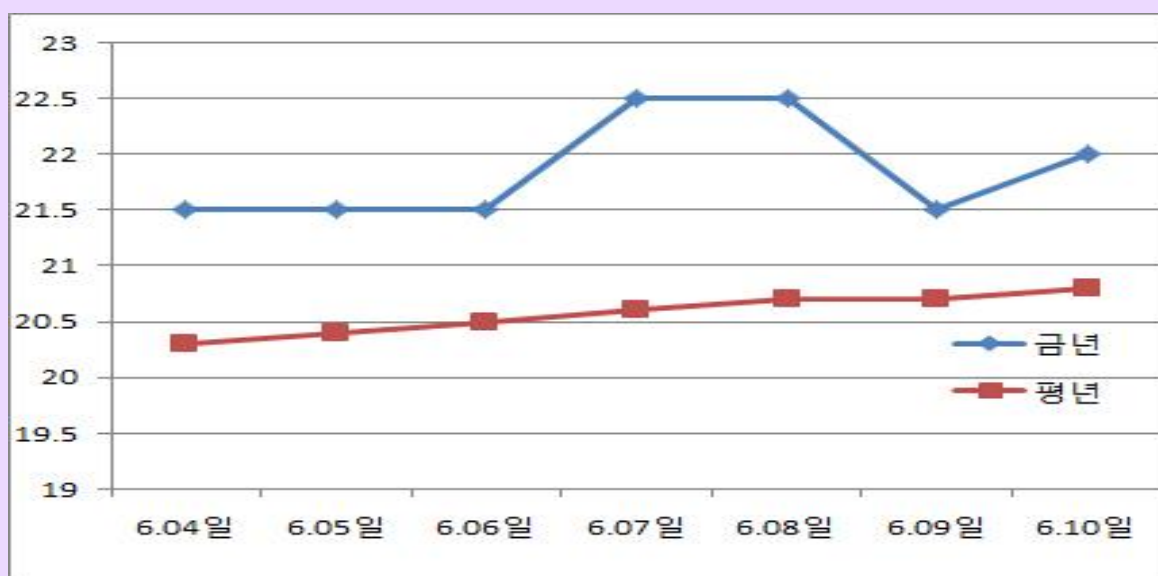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날씨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1.9	20.6	1.3	26.1	25.4	0.7	17.6	16.9	0.3	
6. 04.(목)	21.5	20.3	1.2	27	25.5	1.5	16	16.4	0.4	맑음
6. 05.(금)	21.5	20.4	1.1	25	25.6	-0.6	18	16.5	-1.5	맑음
6. 06.(토)	21.5	20.5	1	26	25.5	0.5	17	16.7	-0.3	맑음
6. 07.(일)	22.5	20.6	1.9	27	25.5	1.5	18	16.9	1.1	맑음
6. 08.(월)	22.5	20.7	1.8	27	25.4	1.6	18	17.1	0.9	맑음
6. 09.(화)	21.5	20.7	0.8	25	25.3	-0.3	18	17.2	0.8	맑음
6. 10.(수)	22	20.8	1.2	26	25.3	0.7	18	17.4	0.6	맑음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벼·에호박 재배 동향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9만 9천 ha

- 농업관측센터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2.1% 줄어든 79만 9천 ha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호 조사치보다 0.2%p 줄어든 수준으로 수확기대비 쌀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2015년산 전국 평균 쌀값이 20kg당 4만 원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벼 재배의향면적 감소폭은 최근 10년간(-2.0%) 평균 감소율을 상회하였다.
- 지역별로는 충청이 전년대비 2.6%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 영남이 2.2%, 강원·경기와 호남이 각각 2.0%,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6%, 중/중만생종은 2.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찰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3.2% 감소

- 2015년 찰벼 재배의향면적은 찰쌀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년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산 수확기(10~12월) 찰쌀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kg당 2,475원으로 전년대비 1.5% 하락하였고, 2015년 들어 전년대비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지역별로는 충청이 전년대비 6.1%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경기가 3.4%, 영남이 3.0%, 호남이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애호박 6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 6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홍천에서는 오이, 고추 농가에서 일부 애호박으로의 작목 전환의향이 있으나, 강원 화천에서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들깨로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당근

○ (배 추)

- 배추 가격은 노지봄배추 및 준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7,000~8,000원/10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시설 및 노지봄당근 출하 중복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 전망

축산물 : 한육우, 오리

○ (한육우)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6~8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14,606원)보다 3% 상승한 kg당 15,000원 내외(생체 600kg 환산 537만 원)로 전망, 도매가격 상승으로 입식의향이 높아져 송아지 가격 또한 상승 예상

○ (오 리)

- 오리고기 공급 증가로 6월 오리 생체 가격은 3kg에 6,500~7,000 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 동향

○ (양 파)

- 재배면적 : 9,171ha(전년 대비 24.1% 감, 평년 대비 19.3% 감) - 전국의 51%
- 숙기별 : 조생종 1,493(16%), 중만생종 7,678(84%)
- 밭떼기 거래(중만생종)
 - 거래가격 : 8~10천원/3.3m²(전년 5~6천원/3.3m²)
 - 거래실적 : 10~15% 성사
 - 부진사유 : 지난해 밭떼기 매입 후 양파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많이 본 상인들의 자금력이 악화되었고 병해충 발생으로 수확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밭떼기 거래를 꺼리고 있음
- 출하동향 : 1,883ha(전체 면적 9,171ha의 21%)
 - 수확 완료시기 : 조생종(완료), 중생종(5월말), 만생종(6월 초~중순)
- 도매시장 가격(15.5.26.현재, 상품기준)
 - 양파 : 650원/kg(전년 397원 대비 64% ↑, 평년 596원 대비 9% ↑)

○ (마 늘)

- 재배면적 : 5,425ha(전년 대비 26.4% 감, 평년 대비 32.8% 감) - 전국의 26%
- 품종별 : 남도 4,232(78%), 대서 1,031(19%), 기타 162(3%)
- 밭떼기 거래 : 11~12천 원 / 3.3m²(전년 7~8천 원 / 3.3m²)
 - 거래실적 : 65~70% 성사(고흥 70%, 해남 63%, 신안 66%)
 - ※ 고흥군 동향 : 작황부진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포전거래를 체결한 상인들이 농가에 지급해야 할 잔금을 삭감하는 사례 발생(대부분의 농가는 평균 10% 삭감 함의)
- 출하동향 : 1,170ha(전체 면적 5,425ha의 22%)
 - 고흥지역은 주대마늘로 출하하므로 70% 수확 완료

- 도매시장 가격('15.5.26.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평년 3,500원 대비 1% ↑)

※ 주대마늘 가격(1단-50개) : 상품 11,500원, 중품 5,000원, 하품 2,000원

○ (당면영농 추진상황)

- 모내기 실적 : 55,729ha(계획 168,100ha, 대비 33%)

※ 추석 명절(9.27.)이 늦어 전년보다 5~7일 정도 늦게 모내기 진행

- 맥류·조사료 수확 : 맥류 1,274ha(계획 16,250, 대비 7%)

조사료 41,400ha(계획 46,000, 대비 90%)

- 매실 수확 : 118ha(계획 3,937ha, 대비 3%)/5. 21일 첫 출하(광양·순천 50톤)

※ 배 봉지씌우기(3,457ha)는 5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 실시

* 출처 : 전라남도

5.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순천시, 전국 최고 매실 생산단지 명성 이어간다

- 본격 출하 시작...철저한 품질관리 등 제값받기 지원 -

- 전국 최고의 매실 생산단지인 전남 순천 매실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 이에 따라 순천시는 철저한 선별 등 품질관리를 통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 우선 시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전국 청과상회, 백화점, G마켓, 직거래 판매 등 판매처 다양화를 통해 분산 출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순천매실은 올해 기상 이변으로 수확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매실의 본고장 명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순천지역은 총 1천302ha의 면적에서 매실이 재배되고 있다. 지난 달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등에 따라 매실 예상 생산량은 총 7천 670t으로 지난해에 비해 2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하지만 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매실을 순천의 전략작목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시는 그동안 고품질 순천매실 생산을 위해 전정사업단을 운영하며 11개 읍면동 순회교육을 해 왔다.
- 또 이달 초까지 복숭아씨살이쫄벌 공동방제를 했으며,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기계 장비와 매실식품 표준화 발효용기를 331농가에 633개 공급했다.
- 시는 앞으로 순천매실 통합브랜드 공동 선별장과 TV 홈쇼핑 및 이마트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광장,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 등 5곳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고정고객 확보 직거래 판매 택배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5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공모사업'에 매실산업이 선정됐다.
-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 66억원을 투자해 매실 유통·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연합사업으로, 순천시 매실생산자단체와 곡성군 매실연합회가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게 된다.
- 또 순천대학교 식품연구기관 등 산·학·연·관의 공동 참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순천 매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생매실 판매 뿐 아니라 매실청, 장아찌, 매실잼, 매실조청, 매실간장 등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순천시는 지난해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8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촌관광체험형 순천매실 산업화'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다.
- 주요사업은 순천매실과 함께하는 행복여행, 매실가공시설 구축, 매실 가공식품 개발 연구용역 및 특허출원, 순천매실 명품화 교육, 소비자 교실 등이다.
- 이 사업은 생산, 가공, 교육, 상품개발, 판매까지 이뤄지는 6차산업 융복합형 사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코레일과 연계한 순천매실 행복여행 및 체험관광은 앞서 4차례에 걸쳐 1천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 시 관계자는 "매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매실산업담당을 신설했다"며 "가공식품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마케팅, 농업 마인드 향상 등을 통해 전국 최고 매실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강진군, 4천743ha 새끼우렁이농법 추진

- 벼농사 제초비용 절감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 -

- 강진군은 벼농사에 따른 제초비용 절감과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등 관내 논 면적 4천743ha에 새끼우렁이 농법을 추진한다.
- 새끼우렁이를 씨레질 직후부터 이앙 후 3일 이내에 1천㎡당 1.2 kg을 골고루 뿌려주면 모 잎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달개비, 올방개 등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수퍼잡초’ 방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초비용을 40~50% 이상까지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군은 관외지역에서 우렁이가 들어올 경우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 장거리 운송에 따른 스트레스로 제초효과 저하 등을 예방하고 새끼우렁이의 원활한 공급과 관내 우렁이 업체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연합회 및 우렁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업체별 공급권역을 설정했다.
- 강진우렁이농장은 강진읍·군동면·신전면, 칠량우렁이농장은 칠량면·대구면·마량면·도암면, 자연사랑우렁이농장은 성전면·작천면, 한들농협은 병영면·옴천면 지역에 새끼우렁이를 공급한다.
- 특히 우렁이 생산업체들은 농가들이 직접 우렁이를 가지러 올 경우 농가 자부담 10%를 받지 않기로 했다.

* 출처 : 무등일보

■ 신안 고품질 마늘 생산 '총력'

- 군, 주아재배기술 보급 박차 -

- 신안군이 지난 21일 안좌면에서 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아를 이용한 고품질 마늘 생산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를 열고 있다.
- 신안군은 지난 21일 안좌면에서 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아를 이용한 고품질 마늘 생산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 신안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1200ha로, 군은 이 중 약 580ha에 주아 마늘을 재배하는 등 마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아 재배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주아재배는 주아 무게가 0.7g 이상의 큰 주아를 선별해 심으면 당년에 곧바로 쪽이 분화된 우량 씨마늘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 또 주아를 심어 다음 해에 종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종구비용이 들지 않아 종구비용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종구에 비해 20%까지 증수되는 장점이 있다.
- 특히 생육이 왕성해 마늘 잎마름병 등의 병해를 예방할 수 있고, 마늘 조직이 치밀해져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김장호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큰 주아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저장성 좋은 고품질 마늘 생산을 기대한다"며 "센터는 지속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군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늘수확 시기가 5월말~6월초 모내기 파종과 겹침에 따라 각 읍면 농기계임대센터에 마늘 수확기계를 배치,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광남일보

■ 해남군, 여주 가격경쟁력 확보 나서

- 조기재배와 2기작 시범사업 실시 타지역과 차별화 -

- 해남군이 해남산 여주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여주 조기재배와 함께 농협 직거래사업단과의 계약추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다.
- 군은 능성 작물인 여주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농가 재배면적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자 타 지역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조기재배와 함께 2기작 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 여주 조기재배는 해남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해 기존보다 두달 일찍 2중 시설하우스에 지난 3월 정식해 이달초부터 수확을 시작했다.
- 이른 수확으로 소비자 직거래의 경우 kg당 7천원에 판매, 기존보다 140%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 올해 해남에서는 모두 4농가에서 0.8ha를 조기재배, 여주를 생산하고 있다.
- 2기작의 경우도 지난해 2농가(0.2ha)가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량은 145%가 늘고 농가소득도 2배가 늘었다.
- 군은 재배지도와 함께 농가 교육을 통해 2중 하우스 시설을 활용한 2기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해남군여주연구회는 농협 직거래사업단과 판매계약을 추진, 이달 하순부터 전국 하나로 마트에 납품할 예정이다.
- 또한 군은 올해 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덕 재배시설(5ha), 건조기 5대 등도 지원한다.

- 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주윤기 담당은 “당뇨와 고혈압 강하에 좋은 식물 인슐린 여주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반면 재배면적이 늘어 판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시설재배 전환과 함께 조기재배와 2기작재배 지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해남에서는 올해 50여 농가가 17ha(시설하우스 4ha)의 여주를 재배,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출처 : 무등일보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중국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고정 판매장 개설한다

- 사천성 성도시 이어 북경사·목단강시에 6월 중 개설해 수출 확대키로 -
- 전라남도는 중국시장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한 수출 전략상품 발굴 및 상설 판매장 운영에 의한 농수산물식품 고정 판매를 위해 6월까지 중국 3개 지역에 ‘전라남도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 판매장 개설 지역은 북경시와 서부 대개발 중심지역인 사천성의 성도시, 중국 동북아 주요 교통 거점이자 러시아와의 국경 무역 도시인 흑룡강성의 목단강시 3개 지역이다.
- 이들 판매장은 현지에서 유통업을 하는 바이어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식품을 직접 수입해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시식 및 홍보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판매를 확대하게 된다.
- 사천성 성도시의 중심 상권지역인 천부광장에 지난 4월 1일 개장한 성도 판매장에서는 한성푸드의 유자차 등 총 39개 품목 7만 2천 달러의 농수산물식품을 수입해, 4월 한 달 동안 1천 600만 원의 전남 농수산물식품을 판매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유자차·대추차(한성푸드), 김자반(완도물산), 복분자주(보해) 등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 성도시에 판매장을 운영 중인 중국 하오유국제무역의 이재석 총경리는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이 현지인들에게 품질 만족도가 높고, 젊은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다양한 품목의 농수산물식품 수입 확대를 통해 100만 달러 어치의 농수산물식품을 수입해 판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북경시와 목단강시에 개설하게 되는 전라남도 판매장은 내부 인테리어, 도내 수출상품 구입 및 수출통관 등 판매장 개설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 배유례 전라남도 국제통상과장은 “농수산물식품의 고정 유통망 확보를 위해 중국 3개 지역에 해외 판매장을 확보했으며, 판매장 운영을 통해 올해 200만 달러의 수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보고 일본, 미국 등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주력시장에도 해외 판매장 개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담양딸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 우리나라 딸기는 2002년 이후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매년 재배면적이 2%씩 감소되어 그동안 높은 가격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높은 가격과 고된 노동을 회피할 수 있는 고설재배로 인해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고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국 6천875ha에서 23만톤이 생산되는 등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가치 하락으로 딸기수출 농가들이 채산성 악화로 수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 이런 실정임에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현재 고소득 작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전략품목으로 딸기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담양군도 1천130여 농가 340ha에서 3만8천톤을 생산, 생산액이 800억원에 이르러 쌀 생산액 650억원을 추월하고 있는 중요한 작목으로 딸기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이다.

- 그동안 담양딸기는 첨단기술 보급과 자체 품종개발로 전국 최고 품질의 딸기를 생산, 백화점 등에 납품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양군과 창평농협이 홍콩시장에 수출길을 확보, 국내 도매시장에서는 상장이 폐지된 5월에도 kg당 1만5천 원의 높은 가격으로 수출 물량을 내보내고 있다.
- 담양에서 이렇게 딸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체 품종 개발 덕분이다. 우리나라 딸기의 78%가 ‘설향’이라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나 설향은 저장기간이 짧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 수출 농가들은 ‘매향’을 재배한다. 그러나 매향은 생산량이 적고 과실이 작아 동남아시장에서 일본딸기 만큼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러나 담양군이 자체개발한 ‘죽향’이라는 품종은 과실도 크고 저장기간도 길며 딸기 특유의 향까지 짙어 일본딸기 못지않는 가격으로 홍콩시장에서 진열과 동시에 판매됨에 따라 수출 물량이 쏠리고 있으나 아직은 농가에 널리 보급되지 않아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앞으로 수출물량을 맞추려면 ‘죽향’ 딸기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수출 전문생산단지를 별도 조성하고 이들 단지는 생산전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모화하고 현대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동남아 농산물 시장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일본을 대체할 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홍콩은 중국 본토는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수출이 가진 의미가 크다.
- 담양군은 이번 딸기 수출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 동남아는 물론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수출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는 FTA체결로 수출확대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쌀 수출은 위생·검역(SPS)협상 문제로 당장은 수출이 어렵지만 앞으로 수출에 대비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 WTO, FTA는 세계를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고 있다. 농업부문이 라고 예외는 없으며, 이제는 농업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비오는 날 우산은 누가 빌려주지 않는다. 비오기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출처 : 남도일보

■ 농식품부, 가공용 수입쌀 3년간 저가 공급...재고 소진 차원

- 단립종 백미 1kg당 564원...가공용·쌀가루용으로 용도 제한 -

- 정부가 가공용 수입쌀을 3년간 저가 공급하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쌀 가공업체와 쌀가루 전문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특별 공급이 이뤄진다.
- 이에 따라 쌀 가공업체에 공급되는 가격은 단립종 백미 기준 1kg당 564원(중립종은 1kg당 548원)이다. 기존 가격(단립종 kg당 705원)보다 kg당 141원 인하됐다. 쌀가루는 곡종 구분 없이 1kg당 342원에 쌀가루 전문생산업체에 공급된다. 이 역시 1kg당 380원에 공급되던 기존보다 38원 낮아진 가격이다.
-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이 많다는 데 있다. 정부의 쌀 재고량은 현재 140만 톤 규모로, 쌀 수입 개방과 소비 감소로 인해 갈수록 재고 소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산 농가의 불안한 심리를 완화하고, 여기에

재고물량 소진으로 인한 수확기 원활한 벼 매입 여력을 갖추기 위해 이번 방침이 실시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쌀 가공식품산업의 활성화 차원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됐다”며 “우선 정부가 보유한 재고량이 많아 농가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수확기 원활한 벼 매입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쌀가공식품산업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주춤했는데, 산업 활성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공용 수입쌀 12만 톤가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특별공급 물량은 가공용과 쌀가루 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용도 외 사용과 부정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용 수입쌀은 용도가 한정돼 있으며, 신곡시장과 가공용 수입쌀 시장이 분리돼 있어 국내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또 밥쌀용 수입쌀 부분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올해 농식품 수출 갑절 늘려 5천만불 달성할 것”

－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결의 －

-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는 19일 수출농협 조합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농식품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5000만달러로 잡고 기필코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 전남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협의회장에 박정현 나주 영산포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고, 중국·동남아시아·중동 등 신흥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식품 박람회 적극 참여를 지원해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 광주·전남농협은 지난해 유례없는 농산물 가격 폭락 속에서도 일본·미국·중국·대만에 배·유자차·파프리카·양파 등 농산물 250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 강남경 전남농협지역본부장은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통해 수출을 농업 성장의 새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출처 : 농민신문

7.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ICT 융복합 확산으로 과학영농 선도

- 완도수목원, 신품종보호 출원 신청...향당뇨 효과도 밝혀내 -

- 전남농업기술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을 통해 과학영농을 적극 이끌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기술원은 이를 위해 지난 22일 시·군 담당자 및 농업인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컨설팅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17년까지 추진하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은 30%가 향상되고 노동력은 20%가 절감되는 등 생산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 고품질의 농식품 생산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선진화로 도약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사업비는 농가별 사업계획에 따라 7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다.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3%, 3년거치 7년 상환),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지원한다.
- 올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기간에 관계없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최경주 원장은 "현재의 농업기술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계량화·객관화·지능화 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 시스템 중 하나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전남의 과학영농을 이끄는 선도주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국내 최초 우리밀 글루텐 개발 성공

- 아이쿱생협, 강력분중력분박력분 출시...다양한 가공품질 향상 기대 -

- 전라남도는 구례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는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가 국내 최초로 우리밀에서 글루텐과 소맥전분을 분리하는데 성공, 우리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아이쿱생협의 생산 개발 성과는 우리밀가루의 활용 범위와 제품성을 크게 향상시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과 품질을 높이고 우리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조경제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탄성력이 있어 면발을 쫄깃하게 하고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베이커리와 가공식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그동안 국산밀은 종자, 재배 기후 등의 한계로 인해 중력분용으로만 가공돼 왔다. 이 때문에 강력분, 박력분 우리밀이 없어 제품 개발, 식감, 품질에 한계가 있어 라면, 만두, 국수 등과 베이커리 등 우리밀 가공식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우리밀산업 육성 경쟁력을 떨어지고 우리밀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는데 걸림돌로 작용, 2014년 우리밀 생산량은 2천 342만 톤에 머물러 자급률 1.5%로 심각한 밀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아이쿱생협은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고 다양한 우리밀 제품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우리밀에서 글루텐을 분리 생산해내는 것에 최초로 성공, 글루텐 성분을 혼합한 우리밀 강력분, 박력분, 중력분의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여기에 아이쿱생협은 우리밀을 재배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더욱 안전한 우리밀 가공식품 생산할 전망이다.
-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우리밀은 생육 기간이 짧고 겨울에도 잘 자라는 친환경 작물이지만 수입밀에 비해 글루텐 함량이 적어 가공식품으로 생산했을 때 식감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인식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밀에서도 강력분, 박력분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입밀 못지 않게 우리밀이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쿱생협의 우리밀가루 중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11~13%로 점성이 강하고, 식감이 쫄깃해 식빵이나 스파게티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글루텐 함량 10%의 중력분은 국수와 라면, 만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글루텐 함량 7~9%의 박력분은 점성이 약해 튀김, 스낵, 케이크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 아이쿱생협은 우리밀 소비 대중화를 위해 구례 용방면 구례자연드림파크에 12억 5천만 원 가량의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12개월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
- 아이쿱생협의 우리밀글루텐으로 만든 밀가루 3종은 2015년 햃밀이 출하되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판매가 시작된다. 우선 자연드림 라면에 우리밀글루텐을 사용하기 시작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한편 아이쿱생협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5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을 기원, 오미예 이사장이 직접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농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소득이 보이는 경영기록장 8종 발간

- 1천부 제작...생산비절감 참여·경영개선 희망농가 등 배부 -

-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가들의 체계적인 경영기록 관리를 통한 경영개선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소득이 보이는 작목별 경영기록장<사진>을 제작, 보급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에 보급된 경영기록장은 경영분석 전문가인 손장환 경제학박사가 작목별 특성을 고려해 식량작물, 특·약용작물, 녹차, 버섯, 시설채소, 노지채소, 과수, 화훼 등 8개 품목으로 세분화해 제작했다.
- '소득이 보이는 경영기록장'의 장점은 첫째, 작목에 적합한 경영기록장 선택이 용이하고, 둘째, 그동안 보급된 어떠한 경영기록장 보다도 기록이 쉽고, 셋째, 영농일지 수준을 뛰어넘어 자기 스스로 소득분석이 가능해 한 해 농사의 결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소득이 보이는 경영기록장' 특징은 단일작목만 기록하도록 돼 있으며 일반현황, 판매일지, 경영비기록, 영농일지, 경영성과 등 5개 부분으로 나눠 기록하도록 했다.
- 특히 영농일지는 한 페이지에 7일 분량을 기록하게 해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는 초보자도 흥미를 잃지 않고 부담감 없이 적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최소화했다.
- 또 경영성과 부분은 소득분석표와 감가상각비, 자본용역비 계산표를 양면에 배치해 작성이 편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메모장에는 농장의 4계절을 영상으로 담아 편집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고온 다습한 여름철 축사 적정 온도 유지해야

- 전남도, 8월까지 가축 질병 특별방역...적정 사육밀도·통풍 등 당부 -

- 전라남도는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에 따라 6~8월을 '여름철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에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2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과 홍보·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 30℃ 이상 고온다습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면 가축들이 더위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에 의한 폐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축사 내부를 적정 온도(25℃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사료를 수시로 확인해 부패한 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특히 가축이 과밀 사육되지 않도록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고, 폭염시 평소보다 사육 수를 10~20% 줄이고, 분뇨 등을 수시로 청소해 유해가스 발생을 차단하는 등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축사 지붕과 운동장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실내에는 대형 선풍기 등을 설치해 실내온도를 낮추는 한편, 충분한 통풍과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고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소금, 비타민과 광물질을 충분히 공급해 가축이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국지성 호우 및 장마철에는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하고, 축사가 침수된 경우에는 빨리 배수하고 축사 내부·외부를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 또한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환풍기 등을 가동하는 한편, 사료는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급수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여름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발생 주요인인 과밀사육을 삼가고, 신선한 공기와 사료를 공급하는 등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가 가까운 가축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없이 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지난 22일 충남에서 야생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 또는 축사 내·외부에서 진드기 발견 시 동물용 의약품으로 철저히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사나 야외에서 옷을 벗어 놓거나 눕는 행동을 자제하고, 작업 후 입었던 옷을 털고 세탁하며, 진드기에 물린 후 심한 발열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 받는 등의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8. 정책동향

◆ 전남 농수산 가공품 서울 특판전서 인기몰이

- 전남중기지원센터, 1주일간 청량리 롯데백화점서 27개 기업 3억 원 매출 -
-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까지 1주일간 서울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물 가공식품 특별 판매전’에 전남 27개 기업이 참가해 3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롯데백화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 식품 개방에 대비해 수도권 시장에서 전남산 농수산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려 소비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 특히 전남 소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8개 기업이 참가해 4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사회적경제체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 행사장에선 장성의 산들래 김치, 거문도 해풍쭈, 장흥 가지산마을 표고버섯, 만재도의 거북손·배말, 장성 축령산 편백 등 지역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신선 제품 및 특산품이 TV 생방송과 동시에 선보여 수도권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구매를 유도했다.
- 이 중 산들래 김치의 백미선 대표는 삼채김치나 배추김치를 현장에서 직접 버무려 손맛을 전하고 볼거리를 제공, 방문객과 백화점 측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이날 행사를 후원한 청량리 롯데백화점의 박대훈 지점장은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가했으면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다른 지역 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전라도만의 특유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인상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전남 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설 뜻을 밝혔다.
- 행사에 참여한 이해경 장성 축령산편백 대표는 “지속되는 불경기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은 “사전에 백화점 유통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남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하는 등 출품 제품을 세심히 선택하고, 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등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유관기관이나 향우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한 것이 이번 행사의 큰 성공요인이었다”며 “행사장에서 느낀 점과 매출의 성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 앞으로 더 내실있는 행사로 정착시키고, 사회적경제체의 참가도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농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

- 27일 대상FNF(주)와 MOU...식품·가공·유통 현장 소통 간담회도 -
- 전라남도는 27일 동부지역본부에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통·식품분야 농업인(단체)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라남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가집 김치’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상FNF(주)와 전남의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전남 농산물의 홍보,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전남산 배추 등 농산물 구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 이어 전남RPC 대표, 전남김치생산자협회, 가공·유통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 간담회에서는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유통단체와 식품 가공업체별로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대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수입 개방 확대, 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식품·유통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농업인들은 생산과 유통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통합마케팅 지원, 전남쌀 고품질 단일화를 위한 벼 품종 홍보 및 농업인 교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판매 확대를 위한 관심 등을 요청했다.
- 또한 쌀 판매 촉진을 위한 햅밥, 즉석식품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수출 채산성 악화에 따른 수출 물류비·장려비 인상 등을 건의했다.
- 전라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즉시 조치하고, 당장 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MOU 체결식에서 “업무 협약을 계기로 배추는 물론 전남 가공 농산물 해외 수출이 확대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어 간담회에서는 “전남 농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나가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규모 있는 농업인을 육성 하되 이들이 소농과도 조화를 이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전남 농정이 가야 할 길을 큰 틀에서 생각하고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녹색축산육성기금 1% 저리융자 신청하세요

- 전남도, 융자사업 6월 10일까지 추가 접수 -
- 전라남도는 친환경축산 정착 및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 대상자를 6월 10일까지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2차 지원액은 48억 원으로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분야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02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해 바 있다.
- 지원 대상자는 친환경 축산물 또는 HACCP 인증 농가와 친환경 축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 사업별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은 축산농가 2억~5억 원, 법인 8억 원, 가공·유통·판매업체는 10억 원 이내다.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운영자금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유통업체 3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1% 저리로 지원되는 녹색축산육성 기금 융자금은 축산농가와 업체가 축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관심 있는 농가 및 사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기금을 조성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축사 화재 경영안정자금 보조 지원 133호 12억 원, 녹색축산 융자 지원 166호 309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옛 방식 그대로 ‘전통 모내기 체험’ 상황

- 농업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남도들노래’ 시연도 함께 펼쳐져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초·중·고 학생 및 동반가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옛 방식에 의한 전통 모내기 시연과 체험행사를 지난 23일 농업테마공원 벼 한 살이 체험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치렀다.
- 이번 행사는 농업박물관이 지난 4월 조성한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썬 내어 못줄을 띄워가며 전통 방식대로 모를 심는 체험행사였다.
- 농업박물관은 체험에 앞서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제51호)로 지정된 남도들노래보존회원(회장 이영자) 30여 명을 초청해 들노래 시연을 펼쳤다.
- 이어 참가자들에게 못자리에 들어가 한 뼀 정도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썬서 ‘모춤’을 만들게 하고, 이를 지게에 저 써레질이 끝난 논으로 옮기게 한 다음 못줄을 띄워가며 한 줄 한 줄 모를 심도록 했다.

- 모내기가 끝난 뒤 참가자 전원에게 못밥(설렁탕)과 농주 등 옛 농부들이 협동노동 후 들녘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나눠먹던 먹을거리를 제공해 벼농사와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했다.
- 김우성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전통 방식의 모내기 체험은 선조들의 협동정신과 전통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9. 해외 농업정보

◆ 2015년 중국 대외무역 하반기에 상승회복세 예상

2015년 4월누계 중국수출입무역총액은 12,225억불로 작년 동기대비 7.6%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 수출액은 6,902억불로 동기대비 1.6% 상승하였으며 수입액은 5,324억불로 동기대비 17.3% 하락함. 대외무역이 전체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는 중에도 한국산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4월누계 한국농수산물식품 수입액은 42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6.6% 상승하였으며 주요 인기제품인 조제분유, 조미김, 비스킷, 음료, 유자차, 고추장, 조미료 등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상무부신문발표에 의하면 올해 세계적으로 무역시장의 활성화가 부족하고 주요경제체와 신흥시장국가의 수출이 감소되는 환경에서 중국정부에서는 수출을 격려하고 수입에 있어서는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수입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발전의 질과 효익을 제고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하반기의 대외무역 형세는 상반기에 비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5. 5. 28.(시카고 선물거래소)

옥수수 가격, 밀 가격 하락 동조와 높은 파종 진척도 등 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7월래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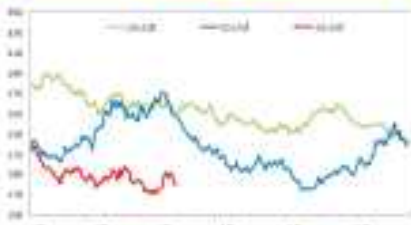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5.27)	전일대비	전월평균 (15.4)	2014 평균
밀	179.16	▼1.2%	184	216
옥수수	137.55	▼1.6%	147	164
대두	340.61	▲0.5%	35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미국산밀:SS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7월물)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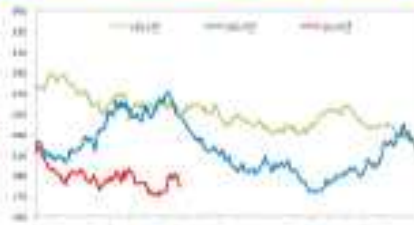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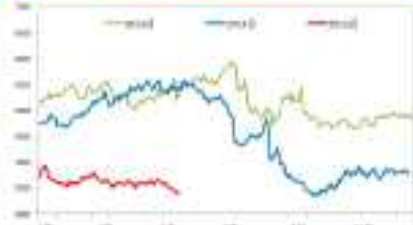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 밀 작황 호조와 시장 기대 이상의 겨울 밀 파종 진척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음. 러시아 주요 밀 생산지인 모스크바 지역의 가뭄과 고온날씨로 인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농무부(USDA)는 겨울 밀 작황 우수와 수확이 45%, 봄밀은 68%라고 발표한.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 가격 하락 동조와 높은 파종 진척도 등이 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음. 캐나다 식물관사청(CRA)은 인도산 사료용 옥수수의 아플라톡신 검사를 위해 수입을 연기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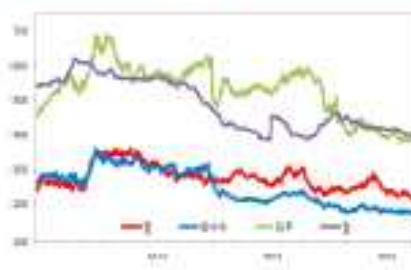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 노조 파업 및 기술적 반동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음. 다만, 미국의 높은 파종 진척도와 기상 여건 호조로 인해 기술적 반동이 제한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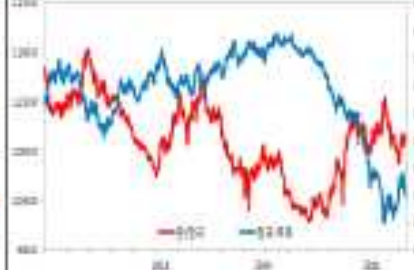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9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지속 전망 및 미 원유재고 증가 영향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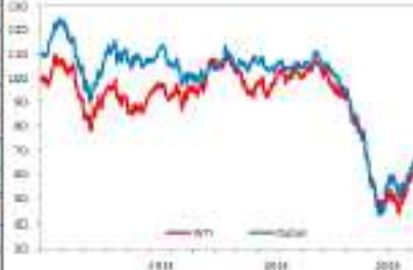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8	▼2.3%	환율	원/달러	1,098	▲0.7%		
	옥수수	167	▼1.2%		달러/유로	1.10	-		
	대두	372	▼0.2%	국제유가	WTI	57.51	▼0.9%		
	밀	384	-		Dubai	62.11	▼1.5%		

주) 1) 밀(US SSW Gulf), 옥수수(US SVC Gulf), 대두(US Gulf), 원(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5.26(수출가격), '15.5.27(환율), '15.5.27(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기구,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고소득 농업사례

■ '골칫거리' 칙의 진한 향기 살려 부농 꿈꾸는 처녀농군

- 35ha서 친환경 재배...오디·복분자 등 건강즙 생산 -

- “복분자와 오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고르다보니 지천으로 칙이 널려 있어 골칫거리였습니다. 칙을 버릴 수도 없어 고심 끝에 본격적으로 칙 가공식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장성군 황룡면 와룡마을에 자리한 블루팜 농장 35ha 규모에서 칙, 오디, 복분자 등으로 건강즙을 생산하고 있는 처녀농군이 있다.
- 주인공은 지난 2006년 대학을 졸업하고 2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2010년 귀농한 블루팜농장 심보란(33) 대표다.
- 이날 심 대표를 만나러 농장에 도착하자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농사용 법씨를 모판에 고르고 있었다.
- 심 대표는 지금 블루팜 농장에서 부모님과 오빠를 도와 칙즙, 복분자, 오디, 곡류, 채소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자연을 생각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정직한 먹거리를 생산해 자연친화적인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심 대표가 꿈꾸는 농사였다.
- 농장의 위치가 광주에서 가깝지만 인근의 농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친환경 농법을 유지하는데 한몫했다.
- 하지만 심 대표는 소신대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지만 잡초와 해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 그 중에서도 칙은 농장의 대표 상품이다. 과거 칙은 농장의 골칫거리였다. 채취에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든다. 또한 많은 칙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화하더라도 기존업체와의 경쟁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차별화를 고민하던 심 대표는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해답을 찾게 됐다. 최소 5년에서 15년생 자연산 칙만을 가공하되, 달이는 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칙의 향이 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됐고, 지난해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상품화 했다.
- 심 대표는 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자연, 건강한 마음, 정직한 기업을 상징하는 농장 브랜드도 개발했다.
- 초록색과 파랑색이 어우러진 블루팜 로고에는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꿈을 담아 깨끗한 자연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농사지으며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농장을 형상화 했다.
- 여기에 칙즙과 베리류 포장 디자인을 개선했고, 쇼핑백과 파우치, 커터기 등 마케팅 소품을 제작해 고객들에게 블루팜을 알렸다.
- 심 대표의 이런 마케팅 개선 노력은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통해 고객의 전화주문이 이어졌다.
- 여기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구매고객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또 상품 구매시 샘플을 동봉해 제품을 홍보했고 신뢰도를 높였다.
- 심 대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블루팜 칙즙은 파우치 110ml 50개들이 1박스에 4만5천원으로 타 제품에 비해 다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단일품목으로 연간매출 5천만원을 기대하고 있다.

- 심 대표는 “블루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가공해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것 같다”며 “친환경으로 생산된 질 좋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블루팜’ 농장은 자연을 생각하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 농장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심 대표는 “농장을 찾는 고객분들에게 체험농장은 물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체험 후 따로 식당을 갈 필요없이 농장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 대표는 청년 귀농인들이 많은 지금 경험 없이 오는 청년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했다.
-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찾았듯이 최근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 추세지만 아무런 경험 없이 무작정 농사를 하면 얻어 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 심 대표는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 “주5일제 시작으로 모든 농장에서 체험만을 가지고 농장 운영을 하는데 하다보니 힘들다”며 “도시에서 뛰어놀기 힘든 어린이들을 위해 농장 초입에 차를 주차해 놓고 농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해남 '세발나물' 고소득 황금작목 정착

- 올해 19ha 면적에 955톤 생산 23억원 판매실적 작목반 역대농가 반열에 -

-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해남산 세발나물이 첫 재배이후 8년만에 고소득 작목으로 급부상되면서 재배농민들이 웃음꽃이 활짝 폈다.
- 해남군이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신소득 작목 개발에 적극 나선 결과로, 세발나물 작목반이 명실상부 억대농가에 이름을 올렸다.
- 현재 문내 예락마을엔 하우스 3만3천㎡, 노지 2만3천100㎡에서 모두 16농가가 연간 620톤의 세발나물을 생산하고 있다.
- 해남군 전체로 보면 올해 19ha의 면적에 955톤을 생산해 23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 해남에서 세발나물이 재배된 것은 지난 2007년이다. 당시 2농가, 노지 8천250㎡(하우스 660㎡ 포함)에서 첫 재배를 시작한 세발나물은 인공재배에 성공하면서 그해 2천9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주재배 작물이던 배추나 대파, 양파보다 소득이 높아 주변 농가에서도 관심을 보여 2008년에는 모두 7농가가 재배에 참여했다.
- 하지만 재배농가도 생소하던 세발나물이 소비처를 발굴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회원들은 주말이면 서울과 인천의 소규모 채소상회를 찾아 세발나물을 소개했다.
- 강행옥 작목반장은 “처음 연구회를 조직하면서 다 같이 잘사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고 설명한다.
- 세발나물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개별 농가보다는 작목반 전체의 성장이 중요했던 만큼, 군에서도 표준재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생산지도에 나눴다.

- 7명으로 시작했던 연구회도 지난 2012에는 모두 16농가가 참여한 영농조합(작목반)으로 정식 등록했다.
- 회원농가의 열의와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재배기술 연구와 지도로 무농약 세발나물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군 지원 시설하우스 확대로 수확횟수와 수확량이 늘면서 점차 안정적인 소득을 올렸다.
- 철저한 공동 운영 시스템으로 해남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 2012년에는 작목반이 세계농업기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 군 또한 지난 2012년에는 세발나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품질인증은 물론 상표법상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지원하면서, 세발나물 중에서 해남산의 경쟁력 확보하게 됐다.
- 지난해 4kg에 6~7천원 수준이던 가격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어 올해는 4kg 한 박스에 1만~1만2천원선에 거래됐다.
- 세발나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섬유질과 엽록소가 풍부해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 출처 : 무등일보

11. 사업신청 안내

◆ 「2015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 신청

- 근거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15. 5. 22.(금) ~ 6. 3.(수) / 13일간
- 신청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산지 일반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15.6.30.기준 통합상표 기간 연장 희망업체(46개업체, 133제품)
- 인증기간 : 2015. 7. 1. ~ 2018. 12. 31.(3년)

◆ 「남도 전통식품 명인 우수 상품전」 개최

- 기간 : 2015. 6. 5.(금) ~ 6. 14.(일) / 10일간
- 장소 : 광주신세계백화점(1층)
- 주최/주관 : 전라남도·광주광역시 / 광주신세계백화점
- 참여인사 :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명인(13명) 등
 - * 남도 식품명인 : 13명(전남 12, 광주 1) ※전국 61명의 20%
- 출품제품 : 100여 제품(다류, 장류, 한과류, 전통주 등)

◆ ‘15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2차)

- 신청기한 : 6월말까지.
- 용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 지원내용 : 가축 사육환경 개선,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기타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등

◆ ‘1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추진 ◆

- 용자규모 : 150억원
 - 1차 선정(완료) : 32호 102억원(시설 27호 92억원, 운영 5호 10억원)
 - 2차 선정(계획) : 48억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36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